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24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유가·금리↓, 미국증시↑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상승: 다우 +1.38%, 러셀2000 +2.29%
- 트럼프 "이란과 협상 진전, 공격 유예"
- 국제유가 10% 이상 급락..국채금리·달러도 하락

Summary

3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5일간 보류한다고 밝히자 일제히 상승. 주요 지수 모두 장 중 2%대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종가 기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38% 상승한 46,208.47에, S&P500 지수는 1.15% 상승한 6,581.00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8% 상승한 21,946.76에 마감했고, 전일 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폭이 컸던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지수는 2.29% 가장 큰 폭 반등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앞서 예고했던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다고 밝힘. 그는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주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또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부분에 동의했고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최후 통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위협 등으로 극으로 치닫는 듯 보였던 전황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를 맞으며 시장은 환호. 다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4일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힘. 이란 측 협상자로 거론됐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엑스(X)를 통해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 가짜뉴스"라고 일축. 이 날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호 공습을 지속함.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한쪽에서 화해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공습이 진행 중인 모습은 여전히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 다만 이 날 시장은 당장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

국제유가는 전일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그로 인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가능성 등을 반영해 급등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급락.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3% 하락한 88.13달러를 기록. 브렌트유는 앞서 아시아장에서 한 때 배럴당 114달러를 웃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발언 직후 배럴당 96달러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음.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멈추자 높아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돼 전일 급등했던 미 국채 금리도 하락. 2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 모두 5bp 내외 하락. 특히 2년물 금리는 초반 4%를 넘기기도 했으나 3.79%대까지 하락하기도 해 일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23bp를 넘기기도. 다만 전 기간물에서 저점 대비 낙폭은 축소. 달러도 약세 전환해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일 주간 거래 종가(1,517.3원) 대비 30.60원 떨어진 1,486.70원에 마감.

(다우 +1.38%, 나스닥 +1.38%, S&P500 +1.15%, 러셀2000 +2.29%)

특징종목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 임의소비재가 2.46%, 유틸리티와 기술, 에너지, 산업이 각각 1%대 강세.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도 모두 강세. 특히 브로드컴(+4.08%)과 테슬라(+3.50%) 상승폭이 4% 내외로 컸음. 테슬라는 일론머스크 CEO가 테슬라, xAI,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는 이른바 '테라팹' 프로젝트를 공개한 가운데 강하게 상승. 일론 머스크 CEO는 현재 공급망의 확장 속도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며 칩을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할 수 밖에 없다고 테라팹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테라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공동 운영하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으로, 두 회사가 사용하는 AI와 로보틱스, 우주 데이터센터용 전용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 바클레이즈는 테라팹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10년간의 성장세를 견인할 핵심 전략이라 언급하기도. 주요 소재 공급 차질 우려를 반영했던 반도체주도 일제히 반등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34% 상승. AMD(+0.67%)와 인텔(+0.32%), 엔비디아(+1.70%), 램 리서치(+2.1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32%).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2.89%)는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강세.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39%)는 단기 주가 과열에 따른 수급 악화 등으로 하락. 전일 씨티는 마이크론에 대해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당분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 다만 디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가격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장기 관점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기회라고 평가.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기존 430달러에서 510달러로 상향 조정.

마이크로소프트(+0.30%)는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관련 위험 등을 지적하며 목표가를 400달러로 하향한 가운데 주가 오름 폭 제한. 팔란티어 테크(+6.74%)는 회사의 메이븐 AI 시스템을 미 국방부의 정식 도입 프로그램으로 지정했으며 영국 금융행동감독청(FCA)과 신규 계약을 발표함에 따라 강세폭 확대. 웨드부시와 미즈호 등이 팔란티어의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혀. 몽고DB(+4.63%)는 미즈호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몽고DB의 성장 모멘텀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익 추정치 추가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반영해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목표주가를 기존 290달러에서 325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가운데 강세.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 정세 추가 악화 가능성 완화에 대한 기대는 항공, 여행주 상승 요인. 델타 에어라인스(+2.66%),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4.46%),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2.39%) 등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카니발(+5.51%),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6.17%) 등 지난주 낙폭이 상당했던 크루즈 관련주도 강하게 상승. 부킹 홀딩스(+1.68%), 하얏트 호텔(+2.41%), 에어비앤비(+3.17%) 등 이외 여행 관련주 동반 상승.

전황 악화 가능성이 완화되며 록히드 마틴(-1.78%), 노스롭 그루만(-3.81%), RTX(-1.69%) 등 방산주는 동반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전 거래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며 급등했던 미 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2년물 금리는 장 중 4%를 상회하다 유가 하락과 함께 3.79%대까지 하락하기도 해 장 중 고점 대비 하락 변동성이 23bp를 넘기기도. 다만 중동 정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인식에 낙폭은 축소. 2년물 금리는 4.8bp 하락한 3.859%에, 10년물 금리는 3.8bp 하락한 4.342%에, 30년물 금리는 2.5bp 하락한 4.913%에 마감.

달러도 약세 전환.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 초반대로 하락. 이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일 주갖 거래 종가(1,517.30원) 대비 30.60전 떨어진 1,486.70원에 거래를 마침. NDF 달러/원 1개월물은 1,485.50원에 최종 호가돼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0.45원 하락. MSCI 한국지수 ETF는 6.38% 상승했고 코스피200 야간 선물도 6.22% 급등.

상품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에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며 국제유가가 급락. WTI 기준 10.28% 하락한 배럴당 88.13달러에 마감. 브렌트유도 10.42% 하락한 배럴당 99.94달러를 기록. 다만 전쟁 발발 이후 지속 하락 중인 금값은 일시적인 낙폭 축소에도 하락세를 지속. 전쟁 여파로 인한 실물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약세였던 구리 가격은 이 날 1.8% 반등.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